

보도일시

2026. 9. 4.(금)

배포

2026. 9. 4.(금)

동해해수청, 추석 연휴 대비 항로표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추석 연휴기간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사전조치 강화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추석 연휴를 대비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항로의 항로표지시설 2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여객선 해양사고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중심으로 시설물 안전상태와 이용자 측면 등을 고려하여 중점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결함은 즉시 개선·보완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향후 항로표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즐거운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등대해양문화 및 해양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최 금 성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김 성 래 (033-520-6275)

